

자동차

Car



월드컵 겨냥 이벤트 '붓물' 내수부진 돌파구

■ 자동차 업계 '여름마케팅' 뜨겁다

에쿠스 등 최고 340만원 할인



◇월드컵 겨냥 이벤트 '붓물' = 현대자동차는 에쿠스·쏘나타·싼타페를 비롯한 대부분의 차종 가운데 올 1·4분기에 생산된 차량에 대해 최고 340만원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최고 할인이 적용된 차종은 테라칸으로 올 1~2월 생산물량에 한해 300만원 할인혜택뿐 아니라 추가로 40만원(재구매 고객이 현대카드로 차를 살 때)을 더 깎아주는 판촉을 실시하고 있다.

현대차는 특히 월드컵 4강 진입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기존의 할인폭을 크게 늘렸다. 신형 싼타페와 투싼의 할인금액을 지난달 50만원에서 이달 100만원으로 2배 늘렸다. 또 베르나 가솔린 모델은 할인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그랜저가 미국 오토 퍼시픽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차지한 것을 기념해 기존 현대차 고객이 그랜저를 출고하면 50만원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기아자동차는 독일 월드컵 스타기원 이벤트로 구형 오퍼러스를 200만원 할인하는 것을 비롯해 뉴쏘렌토와 스포티지는 각각 100만원, 세라토는 80만원 등을 할인한다.

또 뉴카렌스 출시를 기념해 영업소 방문 고객에게 스크래치 경품권을 증정한다. 뉴카렌스 1명, 고급 PDP 5명, 식기세척기 10명, 로보청소기 10명, 디지털카메라 10명 등 총 37만여명이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쌍용자동차는 대한민국 스타기원 붉은함성 페스티벌을 개최해 로디우스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스타기원 지원금 200만원, 무이자 36개월 할부, 48개월 3% 금리적용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카이런과 액티언을 구입하는 고객은 지원금 100만원과 무이자 36개월 할부(선수율 50% 이상), 36개월 3% 금리적용(선수율 15% 이상)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수입차업계도 월드컵 마케팅에 속속 가세하고 있다. 크라이슬러코리아는 이달에 퍼시피카와 지프 그랜드 체로키 4.7, 5.7 모델을 구입하는 고객에 대해 1천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63인치 파브 PDP TV를 제공한



다. 현대코리아는 일반금리보다 2%가량 저렴한 금리 특별할인 혜택을 준다. 현금이나 일반금융 상품으로 구입하는 고객들은 무상점검 기간을 기존 '2년 4만km'에서 '4년 8만km'로 늘려 받을 수 있다. 또 차종별로 내비게이션과



백업센터, 사이드 스텝 가니시, 액세서리 패키지 중 하나를 선택해 무상 장착받을 수 있다.

◇서비스 경쟁도 '점입가경' = 자동차업계의 초여름 마케팅은 서비스 경쟁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수입차업체들이 고급 이미지를 살리고 재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위한 교육시설인 '렉서스 교육센터'를 개최해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BMW코리아도 지난 2월 인천에 1천800평 규모로 있던 부품전문 물류센터를 경기도 이천으로 이전하면서 5천평 규모로 대폭 확장했다.

국산차업계도 고객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각각 1만5천명의 고객을 패널로 참여시켜 수렴된 의견을 상품, 마케팅, 서비스 등에 반영하는 제도를 지난 3~4월 잇따라 도입했다.

GM대우차도 올해 초 중형세단 토스카를 출시하면서 마음에 안들면 환불해주는 파격 마케팅을 도입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다만 국산차 업체들은 무상수리에 있어서는 다소 인색한 편이다. 현대차는 1998년부터 미국에서 동력장치에 한해 10년/10만마일 무상보증을 내걸어 제미를 톡톡히 봤지만 국내에서는 3년/6만km로 훨씬 적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판촉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보증수리 기간을 늘리는 경우는 있다. 기아차는 월드컵을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는 무상수리 기간을 3년/6만km에서 5년/10만km로 연장해 준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렉스턴·액티언 '매연차' 불명예

올들어 국내에서 출시된 자동차 가운데 렉스턴 2.7 TDI, 액티언 스포츠 2.0 DI(쌍용차) 등 2종의 경유 레저용 차량(RV)이 배출가스를 가장 많이 내뿜어 '매연차'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반면 현대차의 아반떼 2.0(휘발유차), 그랜저 2.2디젤(경유차)은 배출가스가 가장 적어 친환경적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2006 독일월드컵에 참가하는 32개국 국가대표들과 전세계 VIP들은 현대자동차를 타게 된다.

특히 현대차는 이번 독일월드컵의 자동차 부문 독점 후원사라는 점에서 '현대차'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한국'이라는 국가 이미지 상승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국내 유일의 월드컵 공식후원사인 현대차는 공식 차량 공급외에도 공식후원사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월드컵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독일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현대차가 공급하는 차량은 제프 블래터 FIFA 회장과 베켄바우어 조직위원장 등 전세계 각계 각층 귀빈들이 이용할 에쿠스를 비롯 그랜저(TG), 쏘나타(NF), 싼타페(CM), 트라제 등 승용, 승합 및 RV 차량 7개 모델 1천여

지난 8일 환경부는 올해 출시된 국산차 17개, 외제차 22개 등 모두 39개 모델에 대해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등 배출가스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5등급의 성적을 매긴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을 발표했다.

1등급을 받은 차량은 휘발유차 중에서는 ▲아반떼 2.0 CVVT ▲아반떼 1.6 CVVT(현대차) ▲오퍼러스 2.7 CVVT(기아차) 등이었고, 경유차에서는 ▲그랜저 2.2 디젤(현대차) ▲카렌스 2.0 디젤 VGT(기아차) ▲윈스톱 2.0(GM대우) 등이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32개국 국가대표팀·전세계 VIP 현대차 탄다

<독일월드컵 공식 후원사>

우수한 성능과 품질을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원차량에 월드컵 엠블럼과 현대차 로고가 결합된 대형 스티커를 부착해 브랜드 노출을 통한 간접적인 광고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각국 대표팀들이 사용하게 될 팀버스를 통해 현대차 브랜드가 각국 미디어에 집중적으로 노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 54주년을 축하합니다

여수시의회	장 김 용 근	여수시육상경기연맹회	장 이 명 준	장 미 영 무 용 학 원 원	장 장 미 영
여수해양경찰서	장 김 광 현	한국음식업중앙회	여수지부	아이비클럽 (IVY club)	여수·여천점
여수상공회의소	장 김 광 현	(주) 남도조경대	표 최 성 남	동성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표 김 옥 성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장 최 영 향	호남광고기획대	표 정 충 식	의료법인 서구의료재단	명예회장 탁 순 용
농협중앙회여수지부	지 부 장 김 충 수	(주) 이원	여수지사장 김 정 애	대한조선(주)	대표이사 신 현 태
여수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조 대 성	제 일 한 의 원 원	장 한 정 우	성산환경(주)	대표이사 김 종 득
전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센 터 장 박 병 천				